_____월 _____일

마거릿 대처: 영국 보수당전당대회 연설

Margaret Thatcher: Speech to Conservative Party Conference (October 10, 1980)

The lady's not for turning



(전략)

If our people feel that they are part of a great nation and they are prepared to will the means to keep it great, a great nation we shall be, and shall remain. So, what can stop us from achieving this? What then stands in our way? The prospect of another winter of discontent? I suppose it might.

But I prefer to believe that certain lessons have been learnt from experience, that we are coming, slowly, painfully, to an autumn of understanding. And I hope that it will be followed by a winter of common sense. If it is not, we shall not bediverted from our course.

To those waiting with bated breath for that favourite media catchphrase, the "U" turn, I have only one thing to say. "You turn if you want to. The lady's not for turning." I say that not only to you but to our friends overseas and also to those who are not our friends.

In foreign affairs we have pursued our national interest robustly while remaining alive to the needs and interests of others. We have acted where our predecessors dithered and here I pay tribute to Lord Carrington.

When I think of our much-travelled Foreign Secretary I am reminded of the advert, you know the one I mean, about "The peer that reaches those foreign parts that other peers cannot reach."

Long before we came into office, and therefore long before the invasion of Afghanistan I was pointing to the threat from the East. I was accused of scaremongering. But events have more than justified my words.

(후략)

이 숙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신이 위대한 국가의 일부라고 믿으며 국가의 위대함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남길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위대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앞길에 서겠습니까? 불만의 겨울이 되풀이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었고, 느리고 고통스럽더라도 이해의 가을로 다가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 후에는 상식의 겨울이 뒤따르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정책유턴'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언급하기를 숨죽이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언론 장식용 단어와 관련해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 숙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친구가 아닌 이들에게도 전합니다.

외교정책으로 우리의 국익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타인의 필요와 이해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로드 캐링턴은 우리 전임자들이 머뭇거리던 일을 행동으로 실천했고, 이와 관련해 우리의 외무장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한 외무장관님을 생각하면 "다른 귀족이 갈 수 없는 외방까지 가는 귀족"이라는 광고 문구를 떠올립니다.

제가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침략보다도 훨씬 전부터 저는 중동의 위협에 대해 언급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제 말을 현실로 입증했습니다.

번역 김은혜(월간조선)